

“교육과정 ‘5·18’ 용어 삭제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

정부 오월정신 역행 진정성 논란
시·도 교육감·시민단체 등 반발
삭제 철회·교육과정 정상화 촉구

교육부가 2022개정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한 것에 대해 지역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과 대통령 취임 후 밝힌 5·18민주화운동과 오월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윤 정부의 진정성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 훼손과 민주주의 교육 약화 등을 우려하며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 요청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4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삭제됐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당면 사안을 오는 18~19일 부산에서 열

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타안건으로 건의해 삭제된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교육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민주교육이 명백히 후퇴한 것이다”며 “교육부가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숭고한 정신은 계승 발전돼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들과 청년단체도 교육부의

2022개정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80개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5·18을 바라보는 현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전박한 역사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며 “오월과 민주주의, 정의로운 역사를 능용하는 처사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철회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원상복원하라”며 “나아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당장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5·18청춘서포터즈 오월일기도 이날 옛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바뀌었다”며 “앞선 과정에서 5차례 언급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교육과정의 퇴행이자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기존 2018 교육과정에 포함됐던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일괄 삭제했다. 교육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하는 대강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으나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기존대로 사용되면서 5·18만 빠져 반발을 사고있다. /황애란·민찬기·김혜린 기자



설레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4일 오후 광주 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한 신입생이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음주운전 ‘들통’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인 2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신호를 위반해 앞 차

량을 친 70대 남성 A씨와 음주 운전을 한 20대 남성 B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

에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음주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150m 가량을 도주했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36%)이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광주경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일평균 14건...8일간 109건
기동대 등 가용 인력 총동원

새해 연초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광주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 교통사고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폭설 이후 연말연시 8일간(2022년 12월 26일~2023년 1월 2일) 광주지역에서는 10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작년 하루 평균 12.5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연말연시 1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일에는 서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5·18 기념문화센터 현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중앙선을 침범해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사고도 발생했다.

3일에는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거나, 좌회전 중 반대 방향 주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등도 연이어 발생했다.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압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까지 가용경찰력을 총 동원해 투입한다.

유형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잦은 곳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심야시간대 대로변과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면서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음주 의심이 있는 경우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확인해 빈틈없는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심야시간까지 음주 후 출근길 운전행위로 이어지는 숙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시청사 돌진 후 잠적 20대 입건

새벽에 광주시청 울타리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께 회사 법 인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시청사 후면 울타리로 돌진한 뒤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SUV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

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음주호흡 측정을 했지만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졸음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 놀라 도망쳤다”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혜린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